

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

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속 각자도생의 묘수 찾기

December 2024



Agenda

1. 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	3
2.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	5
2-1. 글로벌 경제 현황	6
2-2. 글로벌 경제 전망	7
2-3. 글로벌 주요 이슈	9
2-4.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	16
3. 2025년 한국 경제 전망	17
3-1. 한국 경제 현황	18
3-2. 한국 경제 전망	19
3-3. 국내 주요 이슈	21
3-4.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	25
4. 2025년 산업 지형도	26
4-1. 업종별 실적 전망	27
4-2. 주요 산업 전망	28
5. 시사점	29



1

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

20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:

트럼프, 피봇(정책전환), 불화

트럼프 2.0 시기

■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‘게임의 룰’ 대변화

- 미국은 ‘글로벌 리더’에서 ‘힘센 협상 상대국(Strongest Counterparty)’으로 역할 전환
[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과 파급 효과]

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정책	Rule of Game
T rade & T ariff : 중국 견제, 관세 증대	자유무역 → 보호무역
R eduction of tax : 법인세 인하	기업 친화적 정책 강화
U ndocumented Immigrants : 불법이민 억제	노동시장 하부 구조 변화
M ake America Great Again : 미국우선주의	가치기반 동맹관계 → 거래 기반 협상관계
P etroleum: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	친환경 내러티브 후퇴

피봇 (정책전환) 시기

■ 인플레이션 둔화 + 경기침체 우려 증가 → 통화정책 전환(긴축 → 완화) 시작

[경제정책 3대 축 현황]

통화정책	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(금리 인하) 본격화
재정정책	주요국 재정적자 지속. 재정정책의 근본 목적(경기 완충) 달성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필요
구조개혁	구조개혁은 ‘연기 → 착수’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나, 지연 가능성

☞ 단기적 경기 사이클 대응에 통화정책 전환이 유효. 반면,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의 중장기 건전성 및 성장동력 확보에 문제 발생할 수 있음

불화의 시기

■ 경제·사회·지정학적 불화 증대. 또한 정책-시장간 충돌도 증가

- 경제적 갈등: 미-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, 관세 전쟁, 승자독식의 기술경쟁
- 사회적 갈등: 정치 양극화, 빈부격차 심화, 세대간 갈등,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차
- 지정학적 갈등: 중동 분쟁 및 러-우 전쟁 지속, 각자도생 기조 속 군비경쟁
- 정책-시장간 갈등: 과잉 유동성과 과잉부채 간 충돌

■ 갈등 증가 속 돌파구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체제 개편이나, 이에 대한 합의 부족

▶ 불확실성 최고조 속에서, 각국은 각자도생의 활로와 묘수를 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



2

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

- 2-1. 글로벌 경제 현황
- 2-2. 글로벌 경제 전망
- 2-3. 글로벌 주요 이슈
- 2-4.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

2-1. 글로벌 경제 현황

실물 부문은 확장, 금융 부문은 긴축 완화단계

■ 실물 부문: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·중국 경기에 힘입어, 글로벌 경기는 확장 국면에 위치

- 미국 중심의 양호한 경기 지속되며,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치 상향 수정. 다만, EU·일본 전망은 하향
- 인플레이션 둔화기 진입: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대부분 목표치(2% 내외)에 근접

2024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: 2023년 10월 vs 2024년 10월 (IMF)

(단위: %)

글로벌	미국	EU	중국	일본	한국
2.9 → 3.2	1.5 → 2.8	1.2 → 0.8	4.2 → 4.8	1.0 → 0.3	2.2 → 2.2*

* 한국은 2024년 11월 발표된 수정치

■ 금융 부문: 2022년 중순 이후 지속된 긴축 기조 마무리되며, 통화정책 방향 전환

- 미국(2024년 9월), EU(2024년 6월) 금리인하 돌입
-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, 금융시장은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 없이 안정적 상황 유지

■ 비교적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, 체감경기가 약한 이유는 각 부문간의 양극화 심화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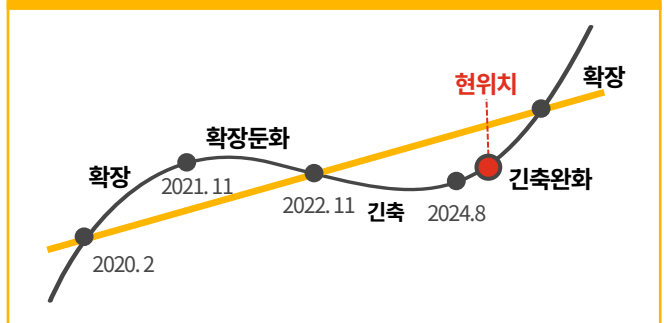
- 일부 국가에 의한 성장: 미국 경제 독주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 내 영향도 증가 vs. 중국·EU 기여도 감소
- 첨단산업 주도 성장: 고용창출 효과가 다소 낮은 하이테크 위주 성장 → 낙수효과 하락
- 기업에 집중된 부의 분배: 팬데믹 이후 GDP 내 가계 비중 축소 vs. 기업 비중 확대 → 가계소비 여력 제한
- 업종 간 차별화: 글로벌 교역 사이클의 느린 회복으로 제조업 둔화 vs. 엔데믹에 따른 서비스업 호조

실물 부문: 확장 중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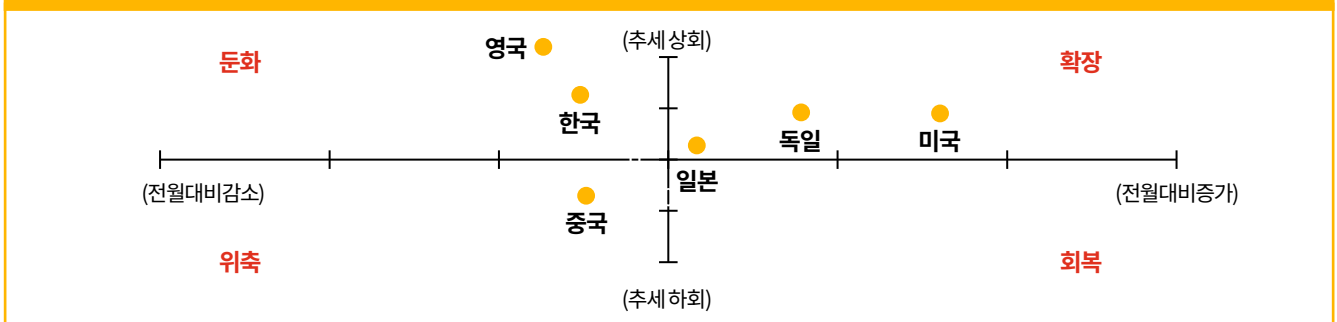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 (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)

금융 부문: 긴축 완화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 (미국 M2/GDP 수준 이용)

주요국 경기 현황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 (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)

2-2. 글로벌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

3% 초반 경제 성장 속,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

■ 성장률 전망(IMF, 2024년 10월): 2023년 3.3% → 2024년E 3.2% → 2025년E 3.2%

- 글로벌: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 전망. 미국 주도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, 주요국 장기 저성장 우려 증대
- 미국: 경기둔화 국면 진입하나, 미국 중심 체제 강화로 경기변동폭 축소 (2024년 2.8% → 2025년 2.2%)
- 중국: 정부의 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, 5%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 (2024년 4.8% → 2025년 4.5%)
- EU: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회복(2024년 0.8% → 2025년 1.2%). 스태그네이션(장기 저성장) 우려
- 한국: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 둔화되며, 잠재성장률 수준의 낮은 성장 (2024년 2.2% → 2025년 2.0%)

■ 인플레이션 전망(IMF, 2024년 10월, 선진국 기준): 2023년 4.6% → 2024년 2.6% → 2025년 2.0%

-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되며 주요국 목표치(2%) 근접하고 있으나, 팬데믹 전보다 높게 유지
-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 재발 시, 인플레이션 이슈 재부각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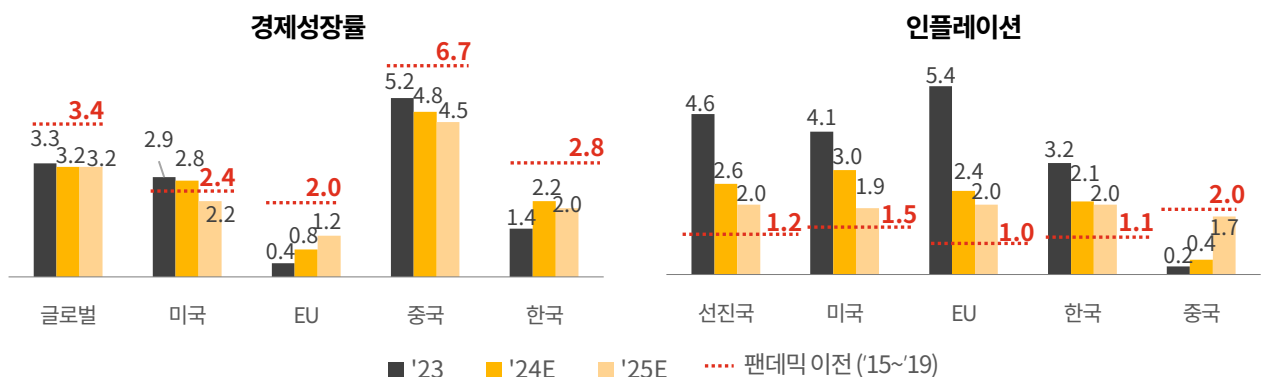


Market View

- 경제 성장: 글로벌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, 국가 간 차별화
 -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견조한 성장 유지하며, 소프트랜딩 전망
 - EU·중국·한국은 팬데믹 이전 대비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한 상황. 2025년에도 저성장 지속 예상
- 인플레이션: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나,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(2%)에 근접

2025년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위치

(단위: %)



Source: IMF (2024년 10월). 단, 한국은 2024년 11월 발표된 수정치

(%,YoY)		글로벌		미국		유로존		중국		한국	
		성장률	물가상승	성장률	물가상승	성장률	물가상승	성장률	물가상승	성장률	물가상승
팬데믹 이전 (2015년~2019년)		3.4	3.2	2.4	1.5	2.0	1.0	6.7	2.0	2.8	1.1
2025년 전망치	블룸버그	3.1	3.4	1.9	2.3	1.2	2.0	4.4	1.3	2.0	2.0
	IMF	3.2	4.3	2.2	1.9	1.2	2.0	4.5	1.7	2.0	2.0

Source: IMF (2024년 10월. 단, 한국은 2024년 11월 수정치), Bloomberg (2024년 11월 말)

2-2. 글로벌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

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, 달러는 소폭 약세 전환

- 2025년 글로벌 금리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, 미 기준금리): 2024년 11월 4.75% → 2025년 4Q 3.65%
 - 선진국 물가 안정 속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. 과거 사이클 고려 시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진행 예상

금리 전망 컨센서스(미국 기준)

(단위: %)

	2024. 1Q	2024. 2Q	2024. 3Q	2024. 4Q	2025. 1Q	2025. 2Q	2025. 3Q	2025. 4Q	2023	2024E	2025E
기준금리	5.50	5.50	5.00	4.55	4.25	3.95	3.75	3.65	5.55	4.55	3.65
시장금리	4.20	4.40	3.78	4.30	4.24	4.15	4.11	4.10	3.88	4.30	4.10

* 국고채 10년물 기준

Source: Bloomberg(2024년 11월 말), 음영은 전망치

- 2025년 달러 인덱스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): 2024년 11월: 106.7 → 2025년 4Q: 104.4 (-2.0%)
 -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주요국 금리차 축소되며 달러가치의 점진적 하락 전망하나, 조정폭은 미미

환율 전망 컨센서스: 미달러 인덱스

(1973년 3월 = 100)

2024. 1Q	2024. 2Q	2024. 3Q	2024. 4Q	2025. 1Q	2025. 2Q	2025. 3Q	2025. 4Q	2023	2024E	2025E
104.5	105.9	100.8	104.8	104.3	104.0	103.9	104.4	106.0	104.8	104.4

Source: Bloomberg (2024년 11월 말), 음영은 전망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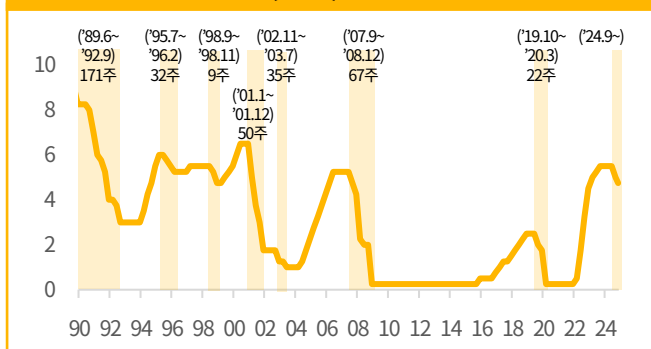


Market View

- [금리] 2025년 상반기까지 빠른 금리인하 후, 하반기로 갈수록 속도 둔화 전망
 -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공격적 금리인하 후,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 기조 마무리
 - 시장금리는 인하 기조 선반영, 미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정책금리 인하폭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
 - [환율]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, 달러가치는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
 - 양호한 미국 경제 펀더멘탈 및 글로벌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강세 추세 지속
 - 또한, 과거 금리인하 시에도 달러 약세가 강하지 않았던 점 고려 시, 금번 조정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
- 👉 팬데믹 이전(2019년 말, 96.7) 대비 강세 지속

금리인하 사이클 비교(미국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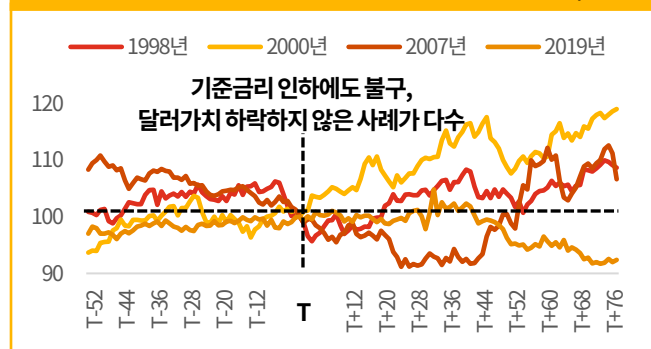


* 음영부분: 금리인하하기

Source: Bloomberg

미 금리인하 사이클과 달러가치

(단위: pt, 주)



* 금리인하 시작된 일자 주간 값 = 100

Source: Bloomberg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① 트럼프 2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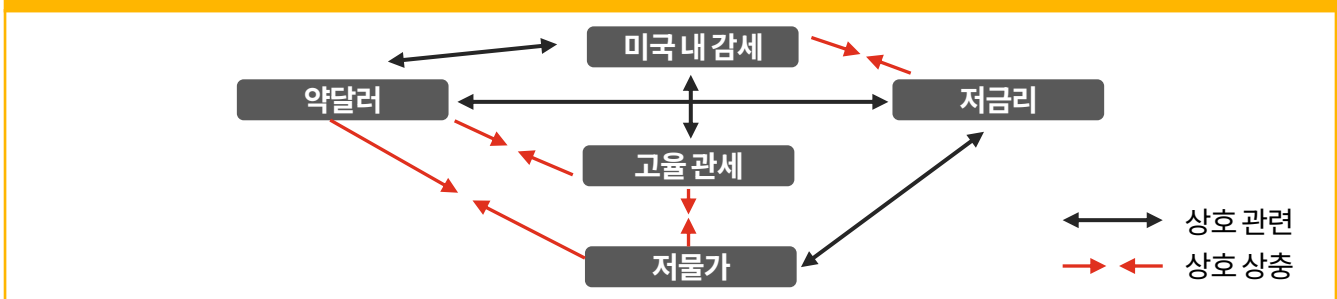
- **트럼프 2기,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를 넘어 ‘미국 유일주의(America Only)’로 강화**
 - 무역 및 관세 장벽 높아지고,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전망

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공약

외교	▫ (안보) 동맹국 역할 및 비용 압박: 고립주의 정책 기조,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▫ (전쟁) 러-우 전쟁 종결 유도,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지지 ▫ (대북) 북-미 관계 개선 및 협상 의지, 다만 북한 대화 거부 시 최대 제재
통상	▫ (무역) 양자 협상과 상호성 원칙 기반으로 미국 패권 걸림돌 되는 국가 규제 및 관세 강화 - 양자 협상: 다자 협상 아닌, 국가 간 일대일 협상. 우월한 지위 활용해 미국 이익 극대화 - 상호성 원칙: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 상대국에 부과 ▫ (관세) 중국산 60%,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 10-20% 보편 관세 부과 ▫ (대중) 디커플링 기조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히 분리, 중국 최혜국대우 철폐
경제	▫ (기업) 미국 내 제조업 법인세율 인하: 21% → 15% ▫ (통화) 연준 기준금리 결정 개입 ▫ (공급망) 온쇼어링 중심: 생산 거점 미국 회귀 ▫ (이민) 불법 이민 근절 → 노동력의 이동 제한 ▫ (세금) 부유층 세금 감면 ▫ (금리) 저금리로 기업투자 확대 ▫ (보조금) IRA 인센티브 축소(폐지)
환경	▫ 파리기후협약 재탈퇴, 석유·가스 시추/개발 확대 → 친환경 정책 후퇴

- **미국 유일주의에 초점 맞춘 4저·1고(저금리, 저물가, 감세, 약달러 + 고율 관세) 경제 정책 제시**
→ 정책 간 상충 등으로 ‘3불(不) 시대’ 가능성 농후
 - (불안정) 감세-저금리, 고율 관세-저물가 등 정책 간 상충
 - (불확실) 통상조건 변화, 산업 전반 개편 등 게임의 룰 교란
 - (불안감) 자국 이기주의 팽배해질 경우 글로벌 금리, 환율 전쟁 이어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악화

트럼프 2기 정책 간 관련성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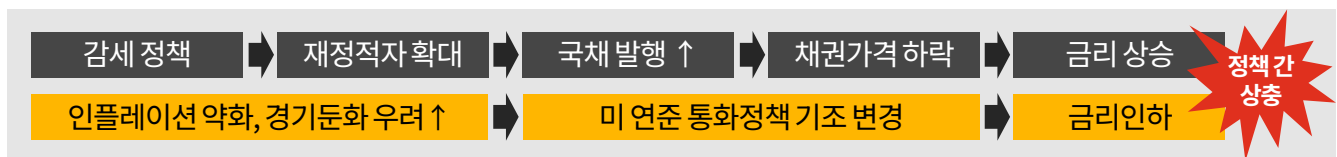


자세한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‘트럼프 2.0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(2024. 11)’ 참조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

- 주요국 재정 확대(적자) 지속되는 가운데, 기준금리 인하 단행 → 통화정책(금리인하) 효과 반감
- 특히 트럼프 정부 재정정책(감세)과 통화정책(저금리) 간 충돌 예상
 - 트럼프 경제 공약 실현 시 재정적자 증가 예상 → 국채금리 상승으로, 미 연준 금리인하 기조와 충돌
 -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96% 수준으로, OECD 평균(78.2%) 대비 이미 높은 상황 (2023년 기준)
 - 트럼프의 세금인하-재정지출 확대 반영 시, 2026-2035년 사이 총 1.4조~15조 달러(중앙값 7.5조 달러) 적자 증가 →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42%로 상승 → 국채 장기금리(10년) 43bp 증가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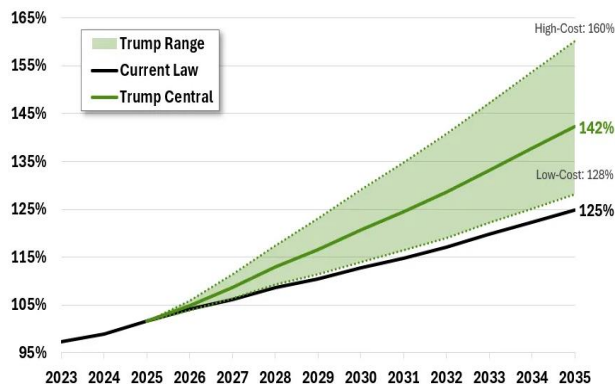
- 2025년 1월 전까지 끝내야 하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
 - 미국은 연방 정부의 부채 총량을 법적 한도로 제한하는 부채한도(Debt Ceiling) 시행 중. 상하원 과반수 승인을 통해 한도 상향 또는 적용 중단 결정
 - 2025년 1월 1일까지 협상 미타결 시, 다음날부터 한도 제한 적용돼 디폴트(채무불이행) 리스크 고조

2025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일정

상하원 부채 한도 협상 (2024년 12월 중) → 협상 결과(한도 상향 또는 유예) 이행 (2025년 1월 2일~다음 협상 시기)
단, 2025년 1월 1일까지 협상 완료되지 않을 경우, 디폴트 예고 날짜인 X-date(2025년 상반기 중)까지 협상 지연

-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수 확보하여 부채 협상 타결 전망
 - [타결 시] 공화당 지지로 트럼프 2기 정책 탄력 받을 경우 재정 적자 폭증 예상
 - 👁 재정정책의 빠른 효과 감안 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긍정적 작용하나, 중장기로는 부정적 요인
 - [미타결 시] 디폴트 가능성은 작으나, 협상 지체로 美 신용등급 하락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
(예) 2011년 美 양당 부채한도 극적 합의 여파로 S&P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(AAA → AA+) → 美 주가 16.8% 급락 및 10년 만기 美 국채금리 3%에서 1.7%로 하락

트럼프 2기 적자 전망 (2026~2035년) (단위: %, GDP)



Source: CBO, CRFB

트럼프 2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: 십억 달러)

관세 증가	2,700
기타 소비 및 세금공제 축소	1,000
TCJA(감세와 일자리법) 연장 및 수정	-5,350
개인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	-3,600
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 확대	-200
국방비 증대	-400
의료 관련 지원 확대	-150
불법이민 규제 및 국경 보안 강화	-350
주택관련 지출 증가 및 세금 공제	-150
순이자	-1,000
재정적자 확대 순 규모	-7,500

*2026~2035년 합계 / Source: CRFB, 한국은행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③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증대*

■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불확실성 상승

- 필립스곡선¹⁾ 불안정, 금리-자산시장 간 상관관계²⁾ 약화, 비전통 통화정책³⁾ 확대, 비은행 금융권 부상 등으로 전통적 경제정책의 효과 반감.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폭

1)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

2) 금리-자산시장(부동산, 주식 등) 간에는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존재

3)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(양적완화/긴축 등)을 이용하여 경기를 조정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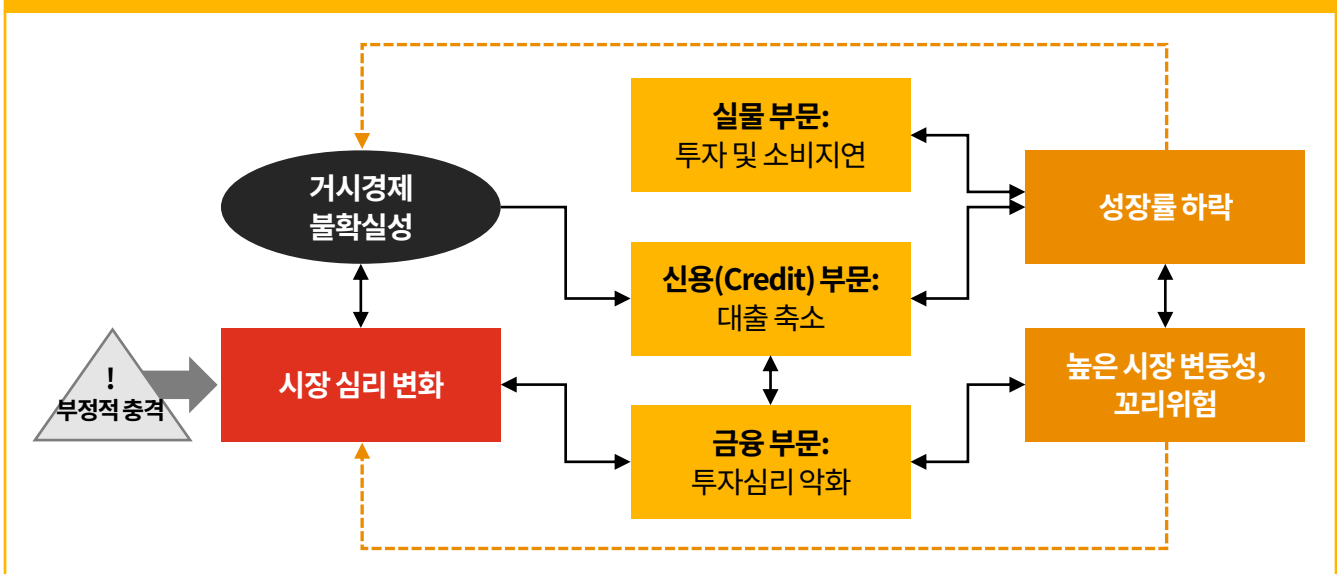
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영향(시스템 리스크) 미치는 3가지 경로

- 시장 경로: 투자자 심리 악화 → 꼬리위험⁴⁾ 하방 확대(자산가격 하락) → 경제 전반 전파
4) 거대한 일회성 사건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, 발생 시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
- 실물 경로: 기업, 소비자가 투자와 소비를 지연 → 경제 활동 둔화 → 신용위험(부도 등) 증가
- 신용 경로: 차주에 대한 대출 태도 강화 → 신용 공급 축소(대출 감소)
☞ 최근 SNS 전파로 꼬리위험 진행 속도가 빨라짐. 또한, 동일한 AI모델 사용으로 군집 행동도 증가

■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. 금융 취약성과 결합 시 충격 심화

- 거시경제 불확실성 1 표준편차(1 σ) 증가 시, 1분기 후 실질 경제성장률 0.5~2.0%p 감소시키며, 약 7분기에 걸쳐 영향력 행사
- 거시경제 불확실성 + 과도한 민간 및 공공부채: 경제성장률 하방 위험 크게 증가
- 국내 거시경제 불확실성 + 외국 거시경제 불확실: 수출 감소, 투자 제한되며 경기둔화 위험 증가
-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특히 꼬리위험에 더 큰 영향 끼쳐 부정적 파급효과 가속화 가능
☞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, 정책 프레임워크 신뢰성 확보가 중요

거시경제 불확실성의 금융시장 파급 경로



Source: IMF (2024년 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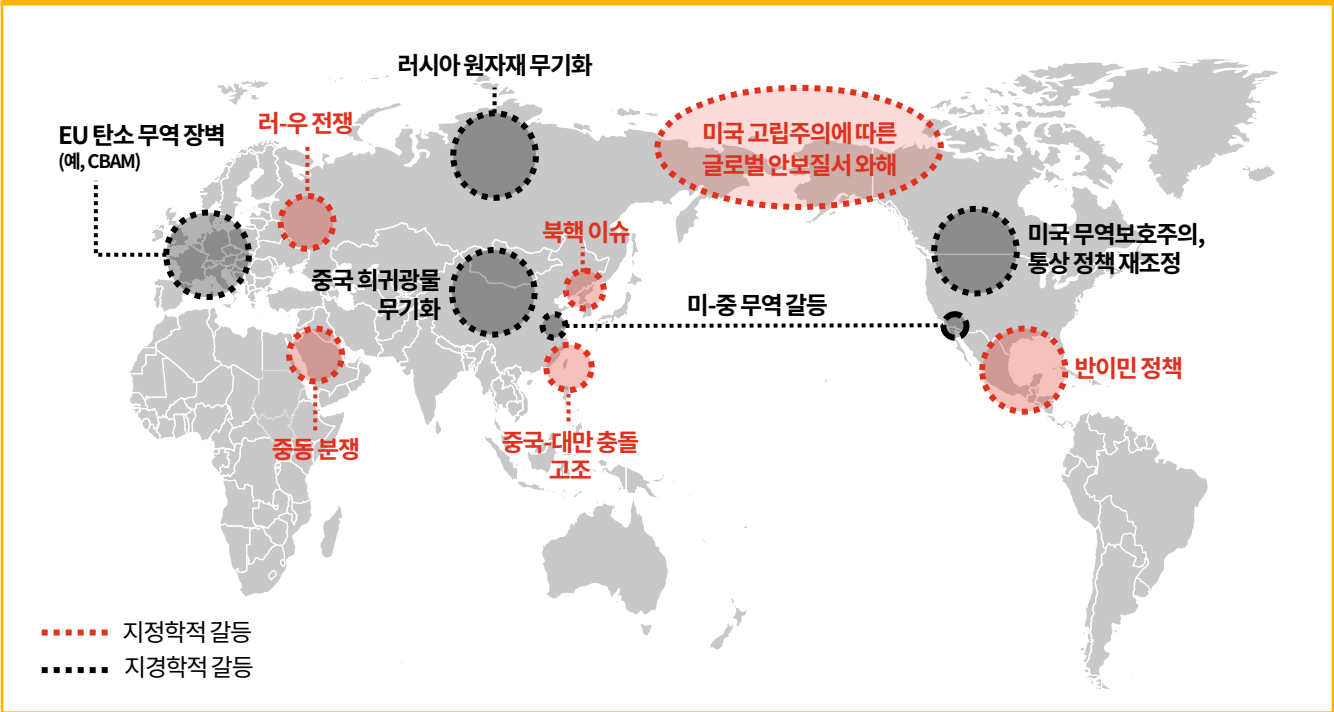
* 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(2024년 10월) 참조하여 작성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④ 지정학·지경학 리스크

■ 러·우 전쟁 및 중동 전쟁 장기화, 트럼프 정부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지정학·지경학 리스크 증대

글로벌 주요 지정학·지경학 리스크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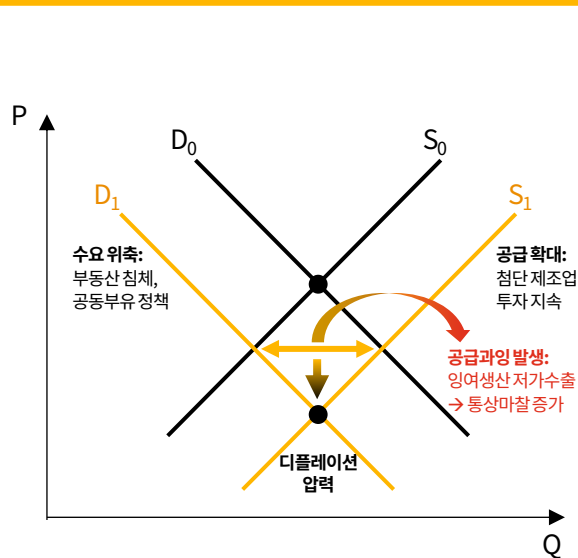
주요 이슈	발생가능한 리스크 시나리오
트럼프 2기 정부 정책	- 중국산 고율 관세 부과 → 중국 경제 둔화 →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타격 (대미 수출 규모: 중국 GDP의 17%) - 보편적 관세 부과 → 보복관세 증가 → 교역량 감소 → 글로벌 성장을 둔화 - 중국 배제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→ 생산시설 이전 비용 등 기업 부담 가중 → 생산 원가 상승 → 인플레이션 우려 재발 - 반 이민 정책 →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→ 인플레이션 발생 - 고립주의* 정책 → 각국 국방비 증가 → 글로벌 안보 질서 와해로 불안감 증폭 * 미국 이익 및 안보 관련 없는 타국 문제 간섭 최소화
미·중 갈등 격화	- 중국 대미 수출 감소 → 제3국 우회 및 디플레 수출 → 제3국 산업 성장 타격 - 미·중 관계 악화로 중국-대만 긴장감 고조 → 꼬리위험(Tail risk) 발생 가능성 증대
러·우 전쟁 장기화	원자재(원유 및 천연가스, 곡물) 가격 상승 및 불안정 → 산업 생산 비용 증가
중동 분쟁 확산	- 유가 급등 및 운송 차질 → 원자재 가격 상승 → 물가 상승 - 중동 무력 충돌 증가 →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- 트럼프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→ 중동 전쟁 확산 →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⑤ 중국 리스크

- **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지속과 함께 주요국들의 대응조치 강화되면서 무역마찰 확산**
 - [공급] 정부 주도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(14차 5개년 계획, 2021년) 등 지속되며 생산 확대
 - [수요] 2022년부터 진행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산가격 하락하며, 소비 위축
 - ☞ 공급과잉 발생하며, 재고 소진을 위한 '저가 수출' 진행 → 주변국과의 통상마찰 증가
 - 또한,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 견제 강화•관세전쟁 등으로 무역 갈등 심화 위험
- **공급 중심에서 수요 확대로 경기부양책 선회 중이나,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회복이 필요**
 - 중국 가계 내 부동산 자산 비중은 65% 수준(2023년 기준)으로, 부동산 침체에 따라 소비심리 저하
 -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, 경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가계저축률 30%에 육박
 - 부동산 안정화 위한 정책 지속되나, 궁극적 회복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때 가능
 -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중이나, 주택 가격은 하락 지속
 - 재고 감소 및 거래량 증가 후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,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
- **경기 부양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막대한 재정정책 필요 전망. 다만, 공동부유 정책 기조는 제약 요인**
 - 중국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, 급격한 경기 위축을 방어할 것
 -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56%로, 주요국(G20) 평균 121% 대비 낮은 수준(2023년 기준, IMF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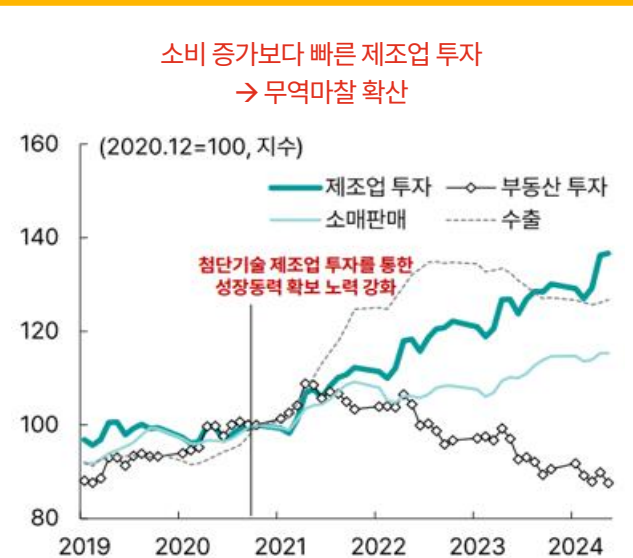
중국경제 현황: 수요와 공급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

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

(단위: 지수)



Source: CEIC, Macquarie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

- AI(특히 생성형AI)는 노동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,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 - [골드만삭스(2023)] AI를 10년에 걸쳐 도입 시, 노동 생산성은 연 1.4%p씩 증가 전망(Baseline 기준)
 - [맥킨지(2023)] 글로벌 전체 AI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7.1조~25.6조 달러로 전망
 - [과기부(2024)] AI 성공적 도입 시 2026년 기준 국내 310조 원 경제효과 발생, 한국 GDP 성장률 1.8%p 상향
 - 자동화·효율화 통한 비용 절감 187조 원,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매출 증대 총 123조 원

- 전 산업에 변화 예상되며, 특히 창의성·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지식기반 산업에 높은 영향도

- 교육·기업 및 법조 컨설팅·이공계(STEM) 전문 기술·네트워크서비스 등은 AI의 잠재력 높음
- 반면, 건축·농업·기계 분야는 생성형AI의 대체 가능성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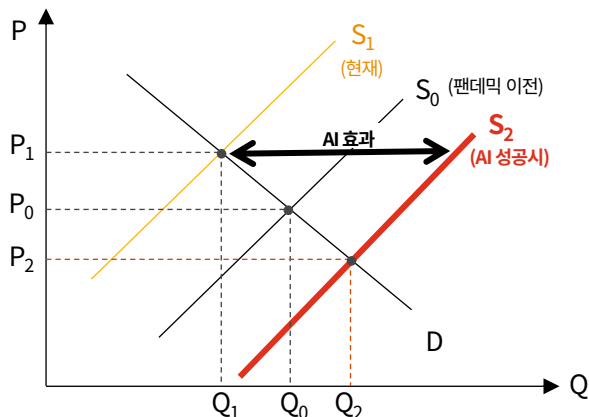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2기 정부는 AI 분야 ‘혁신’과 ‘규제 완화’를 내세우고 있어, 기존 예상보다 AI 발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. 다만, 속도와 효율성 뿐 아니라, AI의 태생적 리스크*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

*경제 분야: 인력 대체, 불평등 강화, ‘승자독식’ 경제 불균형

사회 분야: 명확한 책임의 결여, 잘못된 정보, 디지털 격차, 감시와 갈등

보안 분야: 적대적 공격,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스크, 해킹 & 개인정보 유출

거시경제 불확실성의 금융시장 파급 경로



① $S_0 \rightarrow S_1$

- 구조조정 지연
- 지정학적 리스크
- 미·중 무역전쟁

➡ 생산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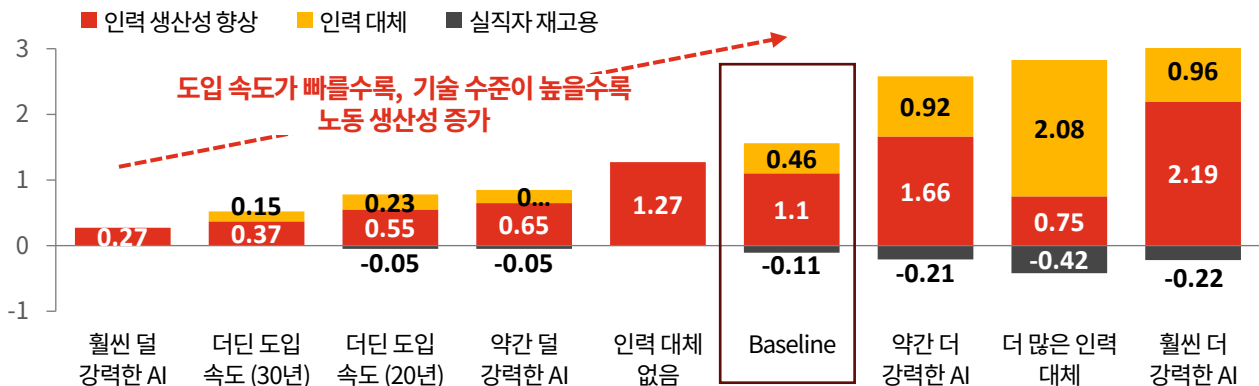
② $S_1 \rightarrow S_2$

-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

➡ 물가 안정 속 경제성장 (골디락스)

AI 도입이 연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: 도입 기간 10년, 글로벌 기업의 절반이 AI 도입 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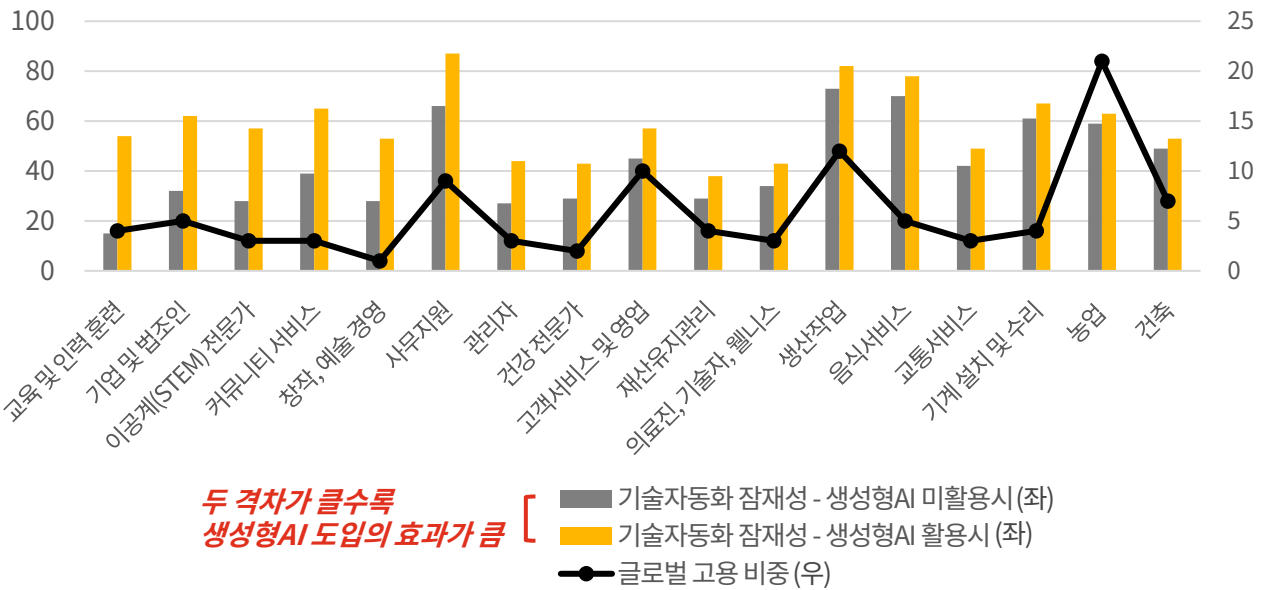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p)



Source: Goldman Sachs 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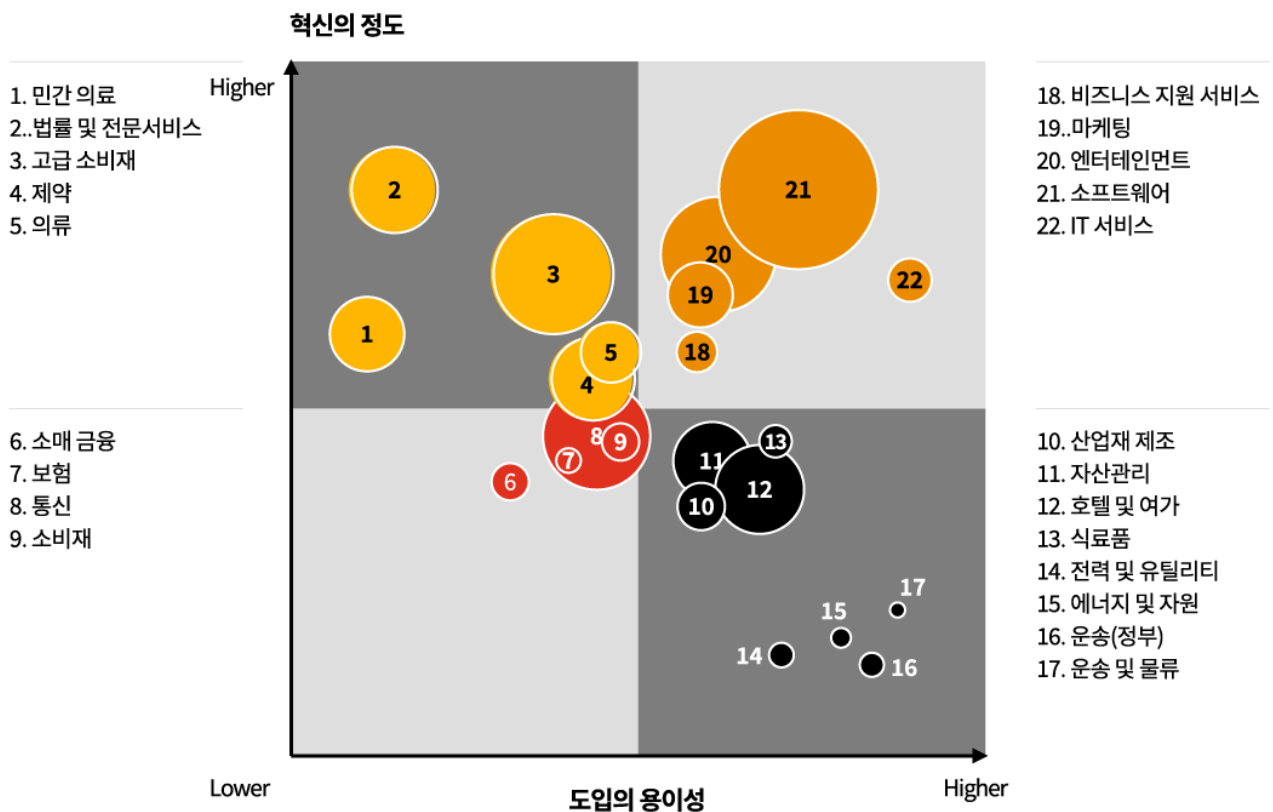
AI를 활용했을 때 산업별 생산성 차이

(단위: %)



Source: McKinsey (2023)

산업별 생성형 AI 도입 용이성 및 혁신의 정도 (원의 크기: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의 상승 정도)



Source: S&P Capital IQ data with PwC and Strategy & analysis



자세한 내용은 삼일PwC의 **‘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현주소(2024. 05)’** 와 **‘산업별 생성형 AI(GenAI) 도입 전략: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선도(2024. 10)’** 참조

2-4.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

Market View(컨센서스)

- 2025년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및 금리인하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 기대
 - 성장률: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 전망 (2023년 3.3% → 2024년E 3.2% → 2025년E 3.2%, IMF)
 - 인플레이션: 하향 안정화되며 주요국 목표치(2%) 근접하나,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유지
 - 금리: 선진국 물가 안정 속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하나, 시장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
 - 환율(달러 인덱스): 달러가치 점진적 하락 전망하나, 조정폭은 제한적

Samil View

- 트럼프 당선과 함께,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
-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① 트럼프 2.0 ② 재정/통화정책의 충돌 ③ 거시경제 불확실성 ④ 지정학/지경학 리스크 ⑤ 중국 리스크 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
 - ☞ 해당 요소들의 부정적 발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, 시장 컨센서스 대비 낮은 성장률·더딘 인플레이션 안정화·금리하락 지연·고환율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

글로벌 경제 전망 종합					
	가능성	경제성장률	인플레이션	금리	달러화 가치
컨센서스		+3.2%	+2.0%	-1.1%pt* (미 기준금리)	-2.0%* (달러 인덱스)
변동요인					
① 트럼프 2.0	높음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② 재정/통화정책 충돌	높음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③ 거시경제 불확실성	중간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④ 지정학/지경학 리스크	중간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⑤ 중국 리스크	중간	하락	하락	상승	상승
⑥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	중간	상승	하락	하락	하락
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		하락	상승	상승	상승

* 현재(2024년 11월 말) 수치 대비 2025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



3

2025년 한국 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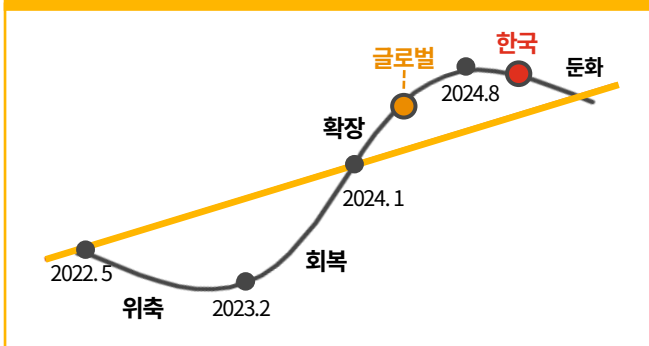
- 3-1. 한국 경제 현황
- 3-2. 한국 경제 전망
- 3-3. 국내 주요 이슈
- 3-4.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요약

3-1. 한국 경제 현황

실물 부문은 짧은 확장기 진입 후 개선세 약화, 금융 부문은 확장 둔화

- **실물 부문: 경기순환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짧은 확장기 진입했으나, 최근 경기 개선세 약화되는 모습**
 - 예상보다 견조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힘입어,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회복
 - 글로벌 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,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
 - 내수는 민간 소비가 미약한 회복에 그치는 가운데, 건설투자 부진 지속
 - 물가는 유가 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9월부터 관리 목표(2%) 이하 상승률 기록하며, 인플레이 우려 해소 중
 - 다만, 2024년 3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1.5% 증가하는 데 그치며,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는 모습
 -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건설업 역성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, 경기둔화 우려 증가
- **금융 부문: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, 2023년 1분기 이후 확장 추이 감소**
 - 주요국 유동성 축소되는데 반해, 한국은 확대폭이 감소되었을 뿐 유동성 축소가 없었던 점이 부담 요인
- **양호한 실물 경기 및 유동성에도 불구하고, 체감경기가 약한 이유는**
 - 수출과 내수의 괴리: 수출 위주 기업(반도체 중심) 실적 회복 vs 내수 기반 기업 부진 지속
 - 건설 부문 부진에 따른 미약한 내수 회복 → 소비 여력 축소 및 소비심리 개선 지연
 - 자영업자(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0.1% 차지) 수익성 및 재무 상태 약화

실물 부문: 확장 후 둔화 단계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 (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)
*변곡점의 날짜는 한국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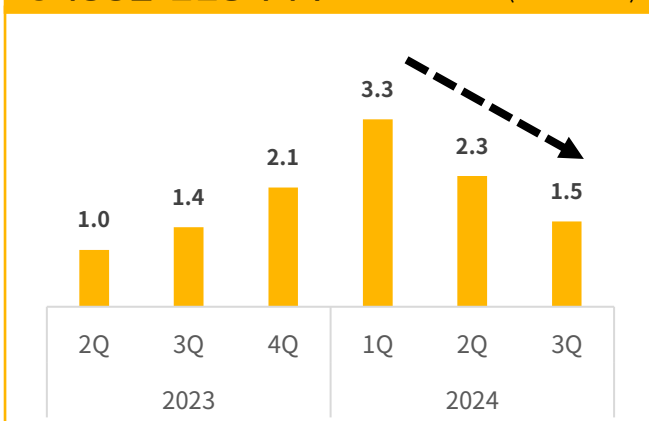
금융 부문: 완만한 정상화 시작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 (한국 M2/GDP 수준 이용)

경제성장률: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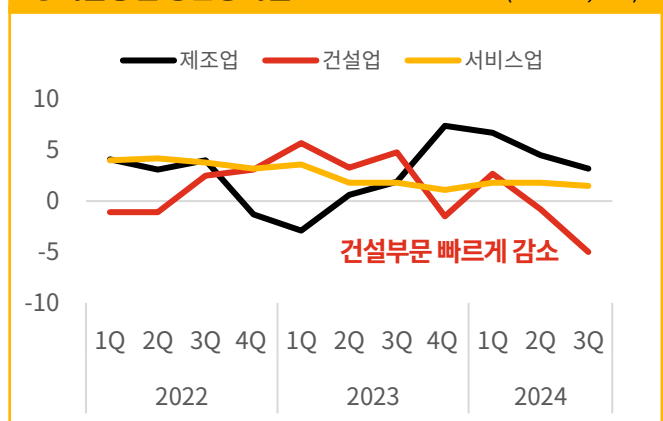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 YoY)



Source: 한국은행

경제활동별 생산증가율

(단위: %, YoY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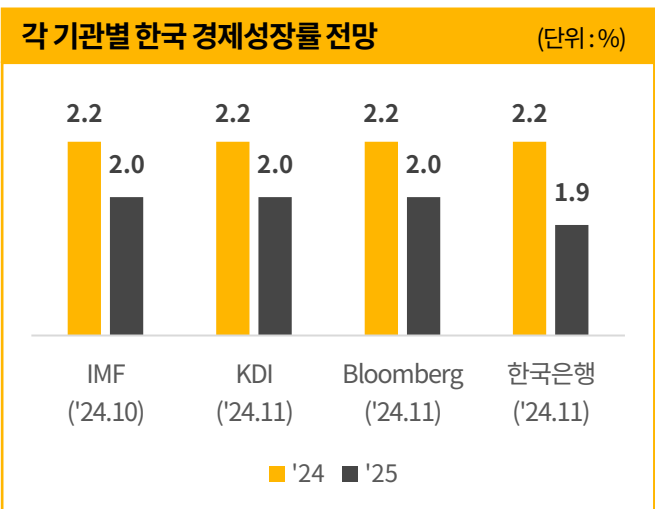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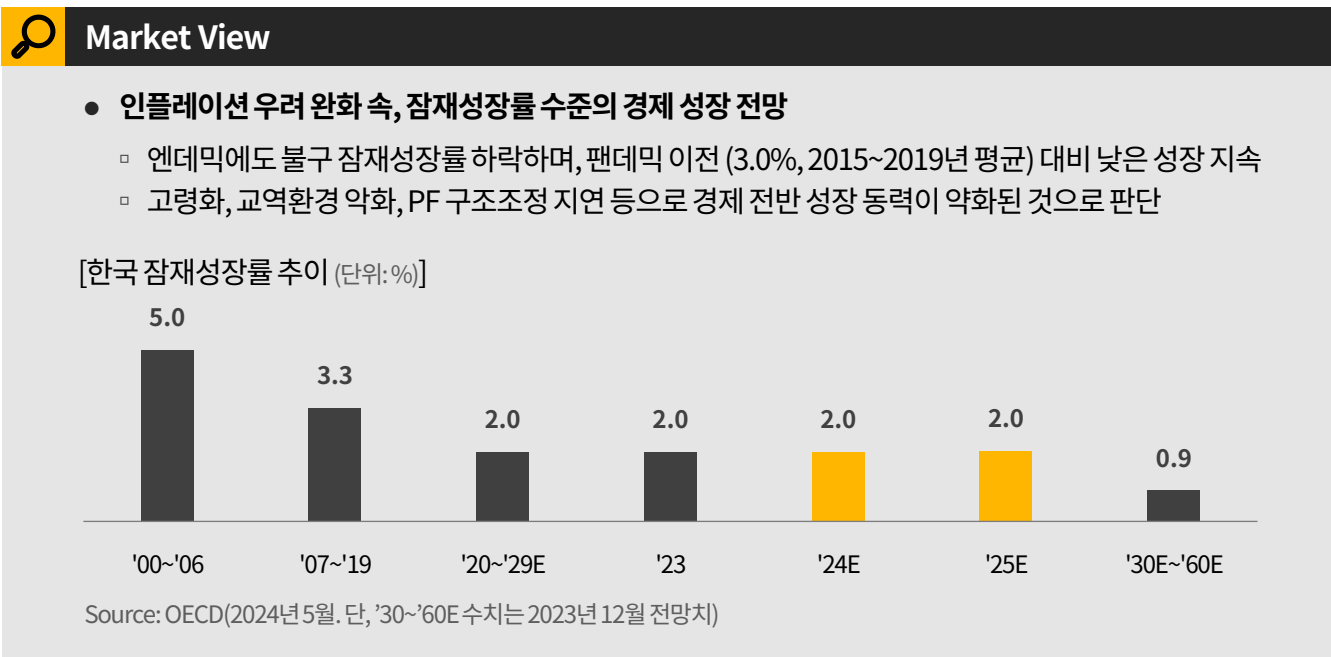
Source: 한국은행

3-2. 한국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

금년 대비 낮은 2.0% 수준의 성장과 물가 안정

- **성장률 전망(컨센서스*, 2024년 11월): 2023년 1.4% → 2024년E 2.2% → 2025년E 2.0%**
 -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해보다는 낮으며, 잠재성장률 수준 전망이 대부분
 -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,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
 -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으로 역성장 지속하며,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- **인플레이션 전망(컨센서스*, 2024년 11월): 2023년 3.3% → 2024년E 2.3% → 2025년 1.9%**
 -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 안정화되며, 인플레이션 목표치(2.0%)에 도달

* 4개 기관 평균: KDI (2024년 11월), IMF (2024년 11월), 블룸버그 (2024년 11월 말), 한국은행 (2024년 11월)



Source: 각 기관

부문별 성장률 전망(한국은행) (단위:%)

	2023	2024E	2025E
GDP 성장률	1.4	2.2	1.9
민간소비	1.8	1.2	2.0
건설투자	1.5	-1.3	-1.3
설비투자	1.1	1.5	3.0
재화수출	2.9	6.3	1.5

Source: 한국은행 (2024년 11월)

3-2. 한국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

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도 동참.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

- 2025년 국내 금리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, 기준금리): 2024년 11월 3.0% → 2025년 4Q 2.5%
 - 물가 안정 속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한국도 동참
 -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추세적 하락 예상되지만, 속도와 폭은 기준금리보다 제한적

금리 전망 컨센서스 (단위: %)										
	2024.1Q	2024.2Q	2024.3Q	2024.4Q	2025.1Q	2025.2Q	2025.3Q	2025.4Q	2023	2024E
기준금리	3.50	3.50	3.50	3.00	3.00	2.80	2.60	2.50	3.50	3.00
시장금리*	3.40	3.26	2.99	2.99	2.88	2.81	2.74	2.63	3.18	2.99

* 국고채 10년물 기준
Source: Bloomberg(2024년 11월 말), 음영은 전망치

- 2025년 원/달러 환율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): 2024년 11월: 1,395원 → 2025년 4Q: 1,345원 (-3.6%)
 -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-미 금리 역전 폭 축소되며, 원/달러 환율 소폭 하락 전망

환율 전망 컨센서스(원/달러) (단위: 원)										
2024.1Q	2024.2Q	2024.3Q	2024.4Q	2025.1Q	2025.2Q	2025.3Q	2025.4Q	2023	2024E	2025E
1,347	1,376	1,315	1,385	1,375	1,370	1,380	1,345	1,291	1,385	1,345

Source: Bloomberg (2024년 11월 말), 음영은 전망치

Market View

-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,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진행
 - 다만,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기 인상 폭이 주요국(특히 미국) 대비 적었던 만큼, 하락기 인하 폭도 크지 않을 전망
- 원/달러 환율은 점진적 하락하며, 1300원 중반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
 - 2022년 이후 주요국과 금리차 확대*되며, 원화가치 큰 폭 하락(원/달러 환율 상승) → 금리인하에 따른 금리차 축소로 원/달러 환율 다소 하락 예상

* 해당 기간 주요국 기준금리차(최대치): 미-EU 1.0%pt, 미-한 2.0%pt, 미-일 5.75%pt

[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]

2015~2019년

2020~2021년

2022~2024년 11월

■ 달러 ■ 유로 ■ 원 ■ 엔

* 해당기간 초 대비 해당기간 말 가치 변화폭
Source: Bloomberg

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① 사면초가의 글로벌 경제 환경

-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·지경학적 환경이 한국 경제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

트럼프 2기 관세 정책

- 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보편 관세(10-20%) 부과 가능성 증대
 - 트럼프 정부, 고관세 옹호론자 하워드 루트닉 행정부 상무장관 지명 (2024년 11월)
 - 한국 美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 재지정 → 트럼프 한국 무역 압박 작용 예상
- 한국에 10-20% 관세 부과 시 한국 수출액 최대 8% 감소 추정
 - [영향도] 실질 GDP 0.67~0.24% 감소 전망 (KIEP 2024년 10월)

미·중 갈등

- 트럼프 대중국 관세 최대 60% 부과 계획 → 중국의 관세 보복,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맞대응 가능성 고조
 - [영향도] 글로벌 GDP의 0.2~7% 감소 추정: 세계 경제에서 일본과 독일 없애는 것과 같은 영향 (IMF 2024년 10월)
 - * 과거 트럼프 1기 미·중 갈등으로, 글로벌 실질 GDP 0.3% 감소 (Itakura 2019년 8월)
- 미·중 갈등 가중 → 공급망 교란 및 세계 교역 둔화로 한국 경제 직격탄
 - [영향도]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6% 감소 추정 (한국은행 2024년 8월)
 - * 과거 트럼프 1기 미·중 갈등 시기 당시, 한국의 대미 수출 0.12%, 대중 수출 0.54% 감소 (산업경제연구원 2018년 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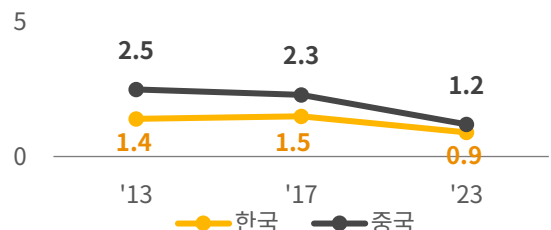
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

- 중동 분쟁 및 러·우 전쟁 장기화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
 - [영향도] 중동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(한국 중동 원유 수입량 72% 통과) 봉쇄 → 한국 전 산업 생산비용 3.02% 상승 추정 (KIET 2024년 5월)
 - [영향도] 러·우 전쟁으로 한국 전력비 연 22조 원 추가 부담 (IEEFA 2024년 3월)
-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북 관계 전면 부각
 - 트럼프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: 북미 관계 회복 가능성과 최대 제재 가능성 공존
 -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로 투자 위축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

좁아지는 기술 격차

- 중국과의 기술 격차 감소로 수출 감소 및 산업 경쟁력 우위 약화
 - 한중 기술 격차 1.1 → 0.3년으로 감소
 - 기술 최고국 미국 대비 한국 산업 기술 수준 상위 3위지만(2023년 기준) 중국 역전 가능성 농후: 미국(100%), 유럽(93.7%), 일본(92.9%), 한국(88%), 중국(83%)

[한중 기술 격차 추이 (미국 대비 기준) (단위: 연)]



Source: KE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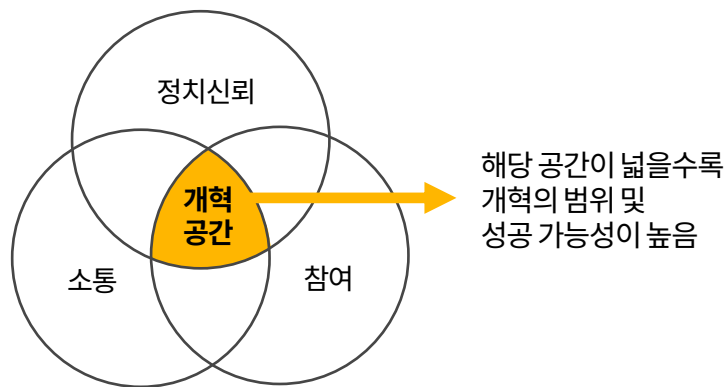
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② 약한 회복 탄력성

■ 약한 디레버리징으로 통화정책 여력 축소,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연→ 경제 회복탄력성 ↓

- 부채 부담으로 인해, 중앙은행이 ‘물가’와 ‘성장’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
 - 엔데믹 이후 주요국 GDP 대비 부채비율 큰 폭 하락했으나, 한국은 미약한 수준의 디레버리징 진행
 - 차주별로는 기업 114%, 가계 94%, 정부 44% 순(2023년 기준)이며, 가계·기업의 부채 증가가 가파름
 - 특히 2022년 이후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2024년 상반기 재차 급증하며 우려 증가
 - 주택 가격·가계부채 등으로 통화정책 운영 범위가 좁아질 경우, 물가/경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어려움
- 개혁의 3요소(정치 신뢰, 소통, 참여)의 기반이 약화되어 경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점도 걸림돌
 - 성공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이 필요. 이는 충분한 정보 전달, 정부·정책에 대한 신뢰, 대중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가능

성공적 개혁을 위한 3요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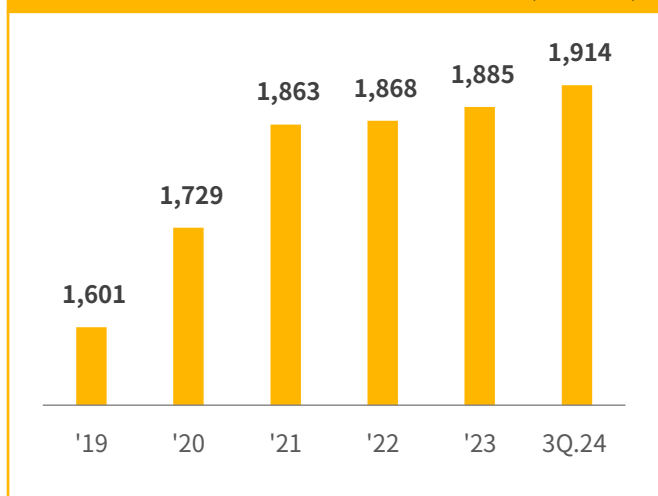
팬데믹 이후 주요국 디레버리징 현황

	레버리징	디레버리징
미국	+37.3%p (’20.1Q~’20.4Q)	-38.5%p (~2024.1Q)
EU	+34.4%p (’20.1Q~’21.1Q)	-52.9%p (~2024.1Q)
일본	+39.6%p (’20.1Q~’20.4Q)	-22.9%p (~2024.1Q)
중국	+45.6%p (’20.1Q~’24.1Q)	레버리징 지속
한국	+30.7%p (2020.1Q~2023.2Q)	-3.3%p (~2024.1Q)

Source: BIS

국내 가계부채

(단위:조 원)



Source:한국은행

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③ 달러 향방과 환율

■ ‘달러 스마일커브’ 기반 환율 분석 시, 2025년 원/달러 환율 하락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

- 지난 4년간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미국경제의 호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달러강세 지속
- 2025년 금리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, 주요국 대비 탄탄한 미국경제 펀더멘탈로 강달러 추이 유지 예상

[달러 스마일 커브] 미국 경제 호황 뿐 아니라 불황기에도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현상

- 불황기: 경제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치 상승
- 호황기: 경제 펀더멘탈 우위로 강달러 현상 발생



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

■ 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강달러 기조 다소 약화되겠으나, 불확실성 상승 및 미국 유일주의 정책기조로 원/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

- 달러인덱스 하락 전망치(-2.0%) 대비 원/달러 환율 하락 전망치(-3.5%)가 다소 높음 (컨센서스 기준)
- ☞ 달러인덱스 수준 변동폭 적용 시, 원/달러 환율은 1,370원 대에 머무는 미미한 조정 전망

원/달러 환율 변동 요인

환율 하락 요인	•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, 최대 200bp까지 확대되었던 한-미 기준금리 역전 축소 → 양국 간 금리차 축소로, 해외 자금 유출 감소하며 원/달러 환율 하락 전망
환율 상승 요인	• 장기적으로 국가 간 환율은 양국의 경제 펀더멘탈 차이로 귀결 -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 증가, 기술 혁신 등으로 미국 잠재성장률이 큰 폭 상승 - 또한 2025년 경제성장률도 미국이 한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 →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펀더멘탈로 높은 달러가치 중장기 지속 •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. 반면, 원화는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,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취약 통화로 취급 →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불안감 확산 시, 원/달러 환율 재상승 가능

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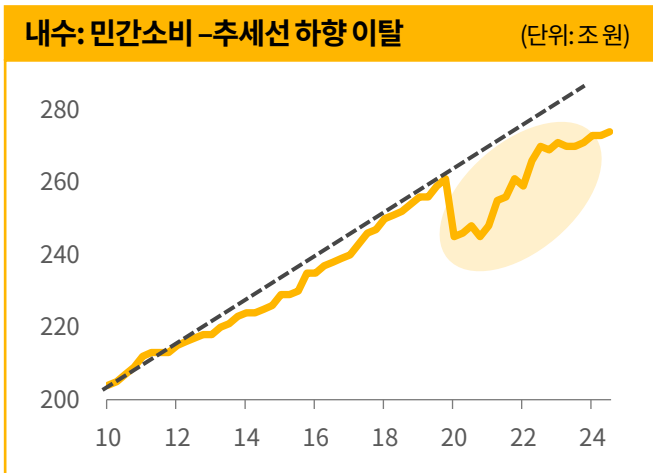
④ 내수 회복

■ 2025년 성장률 전망치의 전제: 수출의 성장 기여도 약화를 내수 회복이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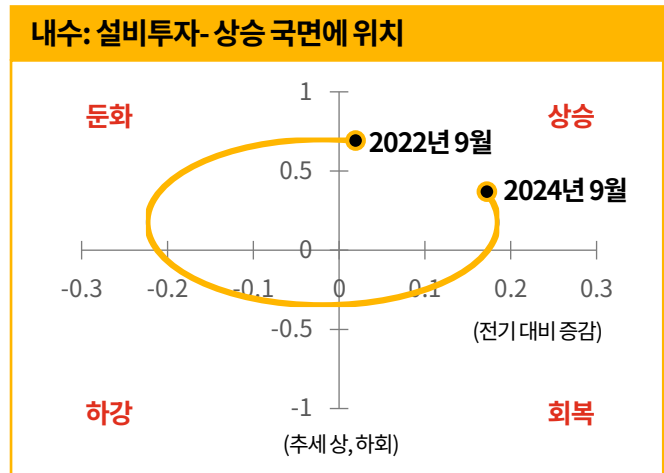
- **수출:** 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제조업경기 둔화로 수출 모멘텀 약화 → 5% 이하의 낮은 성장 전망
- **내수:** 금리인하와 수출의 낙수효과로 소비·설비투자 중심으로 내수 회복 기대

■ 그러나, 소비의 추세적 변화와 건설경기 감안 시, 내수 회복 강도가 시장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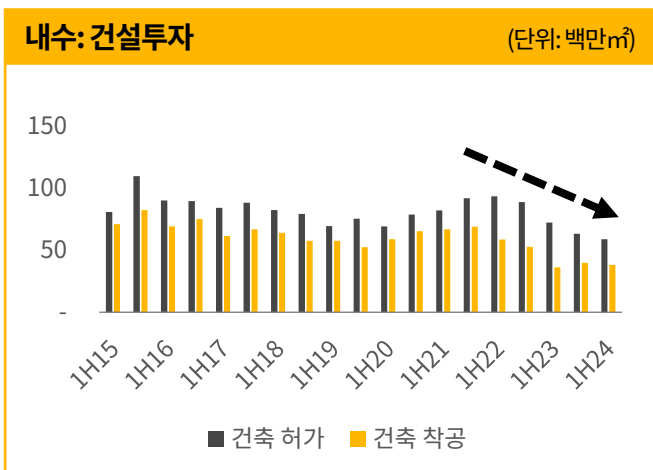
- **소비:** 팬데믹 이후 감소한 민간 소비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, 추세를 큰 폭으로 이탈
 - 민간소비 증가율: 팬데믹 이전(2017~2019년) 평균 +2.8% vs 엔데믹 이후(2023년부터) 평균 +1.0%
 - 잠재성장률 하락, 가계부채, 고령화(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) 등으로 가계 소비여력 감소한 것으로 판단
- **건설투자:**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액 줄어듦과 있고 토목 부문도 부진하여, 건설투자 역성장 전망
 - 지연된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
 - ✓ 2024년 2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132조 원(금융권 보유분)으로, 미미한 디레버리징 속 연체율 상승
 - ✓ 정부의 PF 부실사업장 처리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불확실성 지속
- **설비투자:** 금리하락에 따른 조달 여건 개선, 수출기업 중심 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 증가 전망
 -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확보 위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·정부 지원도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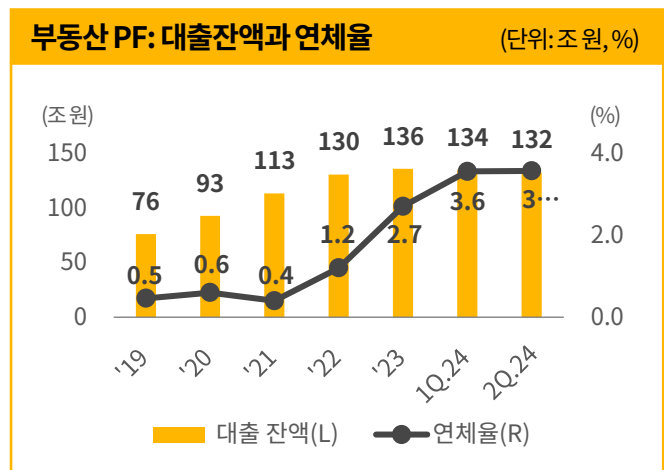
Source: 한국은행



Source: 통계청 경기순환시계



Source: 통계청



Source: 금융감독원

3-4.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

Market View(컨센서스)

- 2025년 한국 경제는 금년 대비 낮은 수준의 성장 속,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및 금리 인하 전망
 - 성장률: 금년보다 낮은,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전망
(2023년 1.4% → 2024년E 2.2% → 2025년E 2.0%, IMF)
 - 인플레이션: 하향 안정화되며, 물가안정목표(2.0%)에 도달
 - 금리: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, 한국도 통화정책 기조 전환(금리인하)
 - 원/달러 환율: 한-미 금리 역전 폭 축소되며, 원/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 전망

Samil View

- 트럼프 2.0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며, 하방 위험 가중
-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① 글로벌 환경 ② 회복 탄력성 ③ 달러 향방과 원/달러 환율 ④ 내수 회복 여부
 - ☞ 해당 요소들의 부정적 발현 가능성 높은 가운데, 시장 예상 대비 낮은 1% 후반대의 성장률•높은 원/달러 환율 전망. 또한,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하 기조 간 충돌 예상

글로벌 경제 전망 종합					
	가능성	경제성장률	인플레이션	금리	원/달러 환율
컨센서스		+2.0%	+2.0%	-0.5%pt* (기준금리)	-3.6%*
변동요인					
① 글로벌 환경	높음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② 약한 회복 탄력성	중간	하락	하락	하락	상승
③ 달러 향방 (높은 원/달러 환율 지속)	중간	하락	상승	상승	상승
④ 내수 회복 지연	높음	하락	하락	하락	상승
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		하락	혼조	혼조	상승

* 현재(2024년 11월 말) 수치 대비 2025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



4

2025년 산업 지형도

4-1. 업종별 실적 전망

4-2. 주요 산업 전망

4-1. 업종별 실적 전망: 컨센서스

- 2024년은 반도체 중심으로 IT 수출주의 실적 개선이 시장을 견인. 화학·철강 등의 소재 분야는 부진
- 시장은 2025년 IT 위주 성장·소재 회복 기대하나, 대외 환경 고려 시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높음
 - 수출 기저효과 및 트럼프 2기 정부 下 통상 조건 악화 가능성 감안 시 큰 폭의 이익 개선 어려운 상황

전업종 실적 현황 및 전망*												(단위:조 원)
* 기업이익에 대한 시장(애널리스트) 전망치는 다소 높게 형성된 후,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되는 특징 고려 필요												
	매출액						영업이익					
	2022	2023	2024E	YoY	2025E	YoY	2022	2023	2024E	YoY	2025E	YoY
전 업종	2,736	2,746	2,893	5%	3,075	6%	194	152	249	64%	313	25%
에너지	229	220	220	0%	225	2%	17	9	7	-23%	12	70%
화학	122	120	118	-2%	131	11%	7	3	3	-20%	7	152%
철강	130	123	118	-4%	121	3%	8	6	4	-30%	6	31%
건설	103	117	117	1%	117	0%	5	4	5	7%	6	22%
기계	70	84	86	2%	92	8%	4	6	6	0%	7	21%
조선	45	57	70	22%	79	13%	-3	1	3	417%	6	80%
운송	90	80	90	11%	91	2%	16	6	9	51%	8	-15%
자동차	339	386	405	5%	422	4%	22	34	37	10%	37	1%
호텔,레저	5	6	7	12%	8	8%	0	1	1	23%	1	21%
소매(유통)	87	83	86	4%	90	5%	2	2	3	11%	3	24%
필수소비재	99	99	103	3%	107	4%	6	6	7	16%	8	10%
건강관리	26	28	32	15%	37	15%	3	4	4	13%	6	54%
은행	-	-	-	-	-	-	28	28	32	12%	32	2%
SW(인터넷)	55	54	58	8%	64	9%	5	5	6	34%	8	27%
IT하드웨어	49	48	52	7%	56	8%	4	2	2	22%	4	48%
반도체	367	306	388	27%	439	13%	54	-2	65	흑전	89	37%
통신서비스	57	58	59	1%	61	2%	4	4	4	-7%	5	26%
유틸리티	145	154	156	2%	162	3%	-30	-2	12	흑전	16	32%

* 2024~2025년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한정: 총 592개 사. 전체 상장사 매출 중 71% 차지
Source: Quantiverse (2024년 11월 말)

4-2. 주요 산업 전망

■ 2025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트럼프 정부 下 통상 및 경제정책 변화

-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재부각, 군비 증강, 관세전쟁, 친환경 기조 후퇴로 산업구도 개편 전망

■ 산업별로는 헬스케어·IT(특히 AI)·방산·석유화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

반면, 자동차·친환경 에너지·2차전지 산업은 피해 우려

긍정적 ↑	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		한국 산업에의 영향	
	우주/방산			
		• 우크라이나 지원금 美 방산업체 지급 • 우주산업 우위 선점 정책 적극 추진 • 동맹국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		• 러시아-우크라이나항 방산 수출 둔화 • 동맹국 간 국방 관련 협력 약화 가능 → 각국 군비 확충에 따른 방산 수출 기회 • 우주 분야 첨단 기술 확보 韓기업의 미국 우주 산업 진출 기회 확대
	바이오	• 제약사 자발적 가격 조정 유도 •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• 필수약품 미국 내 생산 유도 위해 관세 조정 및 무역 제한		• 약가인하 압박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• 한국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(CMO) 기업 사업 확대 기회 • 통상 절차 관련 불확실성 존재
	AI	• AI 행정명령 폐지¹⁾등 빅테크기업 규제 축소로, AI 기업 투자 활성화		• 고성능 AI 기술 확보한 韓기업 반사이익 • 미국 AI 기업 제휴 통한 AI 사업 기회 확대
	화학	• 보편/상호적 관세 통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• 석유 생산 규제 축소		•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수출기업 부담 • 화석연료 규제 축소로 석유 기반 제품 활성화
	조선	• 미 LNG 수출 재개에 따른 LNG 프로젝트 가속화 • 중국 견제에 따른 미 해군 전력 강화 •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해상물동량 위축		•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 • 국내 조선사의 미 함정 MRO 사업 진출 •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신조발주 감소
	기계	•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,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 관련 기계 장치/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		• 보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 • 석유 등 전통적 발전원 부흥 관련 수요 증가
	철강	• 미국 시장 관세 장벽 강화 • 무역 규제 확산 등으로 수출 제약 증가		• 높은 관세 및 무역 규제로 한국 기업 부담 증가
	반도체	• CHIPS법 변화 예상 • 첨단공정, 지식재산, 인력 수출 통제		• 非 미국 국가 CHIPS 지원 조항 수정될 경우, 혜택 축소 가능성
	자동차	• CAFÉ²⁾ 연비규제 완화 또는 폐지 • 중국산 등 해외 생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		• 관세 증가로 대미 자동차 수출 악화
↓ 부정적	2차전지	• IRA 폐지 또는 축소 •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로 전기차 수요 감소		•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배터리 매출 감소

1)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(2023년 11월)

2) CAFÉ: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(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). 기업의 당해 연도 생산 자동차 평균 연비 제한



5

시사점

시사점

- **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되며 기회와 위협의 공존 시기→ 각국의 각자도생 묘수 찾기 노력 강화 전망**
 - 2025년은 그동안 누적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,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
 - 러시아(러-우 전쟁), 중동(이스라엘 전쟁), 중국(미-중 갈등과 경기부진), 멕시코와 캐나다(관세와 국경통제), 유럽(방위비 부담과 친환경 정책), 일본(환율과 통화정책) 등 각국 상황에 따른 할로 모색 전망
- **우리나라도 내년의 시대적 흐름을 ‘전화위복’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**

글로벌 불안정, 중국의 경쟁력 강화, 국내 정책공간 축소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 지지부진

☞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대내외 전략 필요

✓ **대미전략: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환의 틈새 활용 + 신뢰기반 확대로 ‘거래적 요구’ 최소화**

- 미국의 제조업 복구 정책기조에 맞게 중국의 대안으로서 킵* 역할
 - *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,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/조직
- 거래적 협상에 대비하여 ① 동맹 가치에 대한 실증적 증거 제시와 설득 ② 미국의 윈셋(win-set: 협상 시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) 확대 노력 ③ 거래대상 우선순위 점검 및 준비

✓ **대중전략: 경제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변화*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환을 적극 활용**

* 시장으로서의 중국(‘90~’00년대) → 밸류체인으로서의 중국(2010년대) → 경쟁국으로서의 중국(2020년대)

트럼프 1.0은 미-중 무역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, 트럼프 2.0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전망

☞ 이에 따라, 탈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차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

✓ **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기지 다변화**

- 우리기업의 신흥국 통한 원료/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 대상이 될 우려 있는 품목에 대한 재점검 →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검토
-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 부여 필요

생산가능인구 감소, 대외 환경 악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’30년에는 1%대 중반으로 하락 전망

- ✓ **구조개혁과 정책추진 공간(정치 신뢰·소통·참여)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 활력도 강화**
 - 성공적 구조개혁을 위해 충분한 정보 전달, 정부·정책에 대한 신뢰, 대중의 참여향상 필요
- ✓ **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,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, 세제 혜택, 혁신적 신생기업 지원**

Author Contacts

오선주 수석연구위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sunjoo.oh@pwc.com

김효진 책임연구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hyojin.h.kim@pwc.com

강수정 연구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sujeong.j.kang@pwc.com

삼일PwC 경영연구원

최재영 경영연구원장

jaeyoung.j.choi@pwc.com

www.pwcconsulting.co.kr

S/N: 2412C-RP-081

© 2024 PwC Consulting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/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,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 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